

소개  
세 번째 시간  
성령의 시간 !!!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선견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144,000 명의 영적 존재들, 그중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성육신하여 지상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 너머에 있으며 그곳에서 일하고있는 이 시대에는 선지자와기도 전사로서 지옥 문을 습격하고 어둠이 점점 더 침투하는 세상에서 빛이 돌파하도록 돕기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인봉되었습니다. 선한 행위는 행복으로 보상받고 악한 행위는 자신의 양심에 의해 냉혹하고 가혹한 심판을 받는 등, 각자는 지상의 삶에서 뿌린 것을 거둡니다. 이기주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 이것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때가 왔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된 재림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위해 무르익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 하시고 이번에는 영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 그리고 이것은 1884 년부터 1950 년까지 멕시코의 음성 전달자들에게 그분이 준비한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 것을 취하여 너희에게 선포 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가 내 것을 가져다가 너희에게 선포하리라"(요 16:12-15).

예언자 엘리야의 화신이었던 로케 로하스는 엘리야의 화신이었던 세레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멕시코 교외에서 아주 단순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차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화신이었으며, 이번에는 멕시코에서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세 번째 계시를 이해 기관을 통해 음성 전달자로서 받아 적고 인류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임무를 가지고 성육신했습니다.

멕시코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366개의 가르침 중 "제3의 계시"는 684페이지에 70개 이상의 장으로 구성된 개요서로 편집되었으며, 처음에는 스페인어로, 그 후 다른 많은 언어로 "참 생명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12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된 삶의 책에서 인용)

처음 (아버지)

처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과 영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그분의 영적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물질주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연결이 끊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중개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삶의 지침을 제시하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 삶의 지침을 제시할 십계명을 선포하기 위해 선택된 도구였습니다. 모세는 십계명과 상세한 지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삼위일체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첫 번째 시간을 상징합니다.

둘째 때(아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안에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침으로 신성한 사랑을 계시하셨고, 그분의 삶과 희생적인 죽음으로 인류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으며, 따라서 그분은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최고의 표현을 찾은 사랑을 통해 첫 번째

시대의 십계명을 성취하신 신성한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대(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들)를 상징합니다.

셋째 시대(성령)

예수님은 인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에 계실 때 모든 것을 계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때는 엘리야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엘리야의 영은 하느님에 의해 성임된 한 도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처럼 진리의 영이신 하느님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선구자 역할을 한 로케 로하스라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1866년, 엘리야의 영은 그의 말씀 중보자를 통해 "나는 첫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 타보르 산에서 변모한 자이니 너희는 준비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영적 환상의 은사를 받은 청중들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제자들이 다보르 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경험했던 것처럼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위대한 시대에 대한 확인이며 엘리야는 진리의 영이 소통하는 세 번째 시간, 즉 영(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를 완벽한 순서로 전달하십니다:

사랑의 교리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은 후(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가르침을 성취하는 한도 내에서 진리와 지혜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세 번째).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때인 엘리야의 때, 즉 성령의 때이며, 1866년 멕시코에서 참 생명의 책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어 결국 제3성경의 개요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의 영성화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다가오는 지상 평화의 왕국을 준비하는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 안에 거하시며, 하느님은 이 세상에 있든 내세에 있든 모든 존재의 아버지이자 창조주이시며, 모두 그분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창조 초기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성육신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는 처음에는 더 완전한 다른 세계에서, 그리고 지금은 속죄 행성인 지구에서도 자신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많은 성육신을 거쳤지만, 이 또한 영화의 학교입니다.

모든 인간은 내면에 하나님의 불꽃, 즉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영을 인도하고, 영은 인간의 영혼을 인도하며, 영혼은 인간의 마음과 육체를 인도합니다. 인간은 교파, 신조, 피부색, 국적, 교리, 외형 숭배, 거짓 숭배, 돌로 만든 교회, 바리새주의, 거짓 빛의 거짓 가르침에 관계없이 자신을 영화시키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친교를 배워야 합니다!(적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마음 속의 신성한 불꽃, 즉 인간의 영, 즉 양심을 통해 모든 인간을 인도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있는 부드러운 사랑의 아버지로서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을 열고 자신의 마음과 내면의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하느님의 가르침과 영감을 받고 인도받을 수 있으며, 그러면 그의 삶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임무는 사랑과 자비의 일을 수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닮아가는 것, 즉 자신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표는 자신의 노력과 하느님의 은총으로 완전하게 도달하여 아버지께 영원히 돌아가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 모든 영적 존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하는 긴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영을 정화하고 영적 존재를 완전하게 하는 힘이 있는 신성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일곱 봉인

요한 계시록에서 일곱 봉인과 함께 알려진 "생명책"에는 하느님께서 예견하신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일곱 개의 주요 장으로 나뉘며 각 장마다 특정 인장이 있습니다. 이 봉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풀어서 생명책의 각 장에 담긴 빛, 즉 하느님의 뜻과

교육 계획이 인간 세상에 효력을 발휘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각 영적 발전 단계의 주요 가르침은 이 시대와 이후의 모든 시대의 인도자이자 모델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중 한 사람에 의해 상징적인 사건으로 상징화됩니다. - 셋째 시대가 시작된 이래, "생명의 책"은 여섯째 봉인에서 열렸습니다.

첫 번째 봉인: 희생

주님께서서는 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영적 발전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속죄의 희생을 드린 아버지의 첫 번째 종 아벨로 상징됩니다. 그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에 대한 시기가 일어났다." (U.(=지침 번호 및 구절) 161:54)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가인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크게 분노했고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야기의 깊은 의미는 아벨이 물질적인 번제 외에도 지상의 인간적 정열이라는 영적인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은 결백하고 순수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존재의 정화가 바로 희생의 상징입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봉인은 우리가 죄의 정욕을 희생하고 영이 물질을 지배하며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연합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봉인: 믿음

이것은 노아로 상징됩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봉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유 의지를 남용하여 물질주의의 사악한 정욕에 지배당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육체이므로 다시는 내 영에 의해 벌을 받지 않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아직 백 이십 년을 주리라.. 그러나 주께서 사람의 최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땅에서 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님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흠이 없었으며 그 시대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경멸했고, 자신들의 길을 고치라고 정해진 기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믿었습니다. 주님은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와 함께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를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 당시에는 매우 비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던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수행하려면 강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대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은 문자 그대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였으며, 오늘날까지 믿음은 모든 신자에게 구원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영웅인 아브라함이 정확히 두 번째 인봉의 시대에 살았던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세 번째 봉인: 영적 힘

셋째 인은 야곱으로 상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강한"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 또는 이스라엘은 그의 삶에서 많은 역경과 위험에 직면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련을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고 굴복하기 위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영적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영적 특성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선택 하였고, 그의 열두 아들로부터 열두 지파가 나왔다는 점에서.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를 통해 위대한 영적 계시를 알려 주실 수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하늘로 가는 사다리"(창세기 28:10절)로 알려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땅 위에 서서 하늘로 뻗어 있는 사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다리 꼭대기에는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영의 발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한 단계씩 올라가기 위해 더욱 성숙하고 순수해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이 사다리를 오르는 데 필요한 순결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도달한 성숙도에 따라 매번 몇 단계씩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도와 많은 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사다리에서 멈추지 말라고, 즉 영적 발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의 영적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 사다리를 내려오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주님 께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려 보내시는 발전된 빛의 영입니다. 여기서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봉인의 질을 얻는 방법은 이전 두 봉인의 가르침에 유의하는 것입니다. 낮은 정욕을 희생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사는 영의 불꽃을 큰 힘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인봉 율법

율법은 모세로 상징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십계명과 하느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많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인간 법의 기초가 되었고, 십계명을 충실히 지켰다면 인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정의와 질서를 지키며 이웃을 존중하는 선한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은 인류를 심연으로 이끌었습니다.

#### 다섯 번째 봉인: 사랑

이 봉인은 예수님으로 대표됩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완벽한 모범이었고, 그분의 가르침은 단 하나의 사랑의 영광이었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을 때 최고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말씀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랑의 새 계명에는 율법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계명을 끝까지 지킬 때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은 영적 왕국의 전제 조건이자 기초이기 때문에 내세에서는 이미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여섯 번째 봉인: 지혜

여섯째 인은 셋째 시대의 서곡이자 준비 단계로서 구약성경의 선지자이자 위대한 용사였던 엘리야가 임무를 완수한 후 "불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상징됩니다(열왕기하 2:3~14),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 엘리야의 영은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전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 천사의 영은 세례 요한(마태 11, 7-14)에게도 성육신하여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르침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시대에 주님의 영적 재림을 위해 길을 닦았으며, 강력한 천사 왕자로서 모든 영과 세상에 성령의 빛, 즉 신성한 지혜를 전하며, 이는 열린 여섯 번째 봉인 또는 생명책의 장에서 흘러 나오며, 1950년까지 주님 께서 직접 선택한 도구를 통해 가르침과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인의 시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인의 빛은 인류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깨닫고 스스로 영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류에게 비취집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방문은 영들이 하느님의 진리와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류는 일곱째 인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 일곱째 봉인: 완성

일곱째 인으로 일곱째 날에 -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 창조가 완성된 것처럼 구속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영은 길고 슬픈 길을 여행하셨고 다시 영에서 영으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불순종한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과 세상을 이겼습니다. - 일곱 번째 봉인의 상징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며, 영의 발전과 정화의이 어려운 길에서 마침내 도달 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봉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영적 성숙 덕분에 한두 영은 이미 일곱 번째 봉인이 가져올 일에 대한 작은 예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와 인류에게는

아버지와 끊임없는 친교의 시간, 즉 가장 위대한 시간이 모두에게 올 때까지 여전히 여러 세대가 오고 가야하고, 오랜 세월의 시련이 여전히 떨어지고, 많은 눈물이 여전히 마음을 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 III 이스라엘 백성

가르침에서 주님께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또는 단순히 "백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집회가 열렸던 멕시코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하나요? - 아니요 - 오류를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기원과 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급되는 사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여기에 제공됩니다. 성경 전문가는 야곱이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서 새벽이 밝을 때까지 밤에 "남자"와 씨름한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를 제압하지 못하고 마침내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굴복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씨가 땅의 티끌 같으리니 네가 동방과 서방과 북방과 남방으로 흩어지리라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민족을 아우르는 강하고 영적인 공동체, 즉 수많은 강한 민족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와 그분의 가르침의 진리를 땅의 모든 민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건, 즉 제사장적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수세기에 걸친 이스라엘 민족의 발전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접촉을 유지했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싶은 소그룹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 현명한 백성 지도자와 위대한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는 물질주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위대한 지혜, 인내, 추진력이라는 신성한 축복을 오로지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러한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시련을 가져다주었고, 그들의 부와 권력, 자존심은 사실상 이웃 국가들을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회개는 자유를 되찾고 부유해질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소수의 영적 이스라엘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차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열방 가운데서 그분의 영적 사명에 다시 한 번 백성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그들 가운데 사람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들었습니다. 대다수인 물질주의적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고, 공식 교회는 단호하게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지상의 영광스럽고 무적의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강력한 전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겸손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실망이 너무 커서 그들은 그분을 선동가이자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 이렇게 해서 영적인 이스라엘과 물질적인 이스라엘이 가시적으로 분리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사도들 주위에 모였고, 작은 군중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지 않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보시며, 누구든지 그분을 경외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분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진리로 배웠다"고 말한 깨달음을 곧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에 속합니다. 영적 공동체이므로 국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적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떨쳐버리려는 광신적 노력으로 심각한 군사적 패배를 겪었고,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더 이상 국가가 아니게 되었으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성한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메시아를 거부한 물질주의적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 앞에서 예수의 예언은 끝내 성취되었습니다."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보내진 자들을 돌로 치는 너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기를 얼마나 자주 원하였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폐하게 남겨질 것이다." - 그 후 수 세기 동안 그들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소수 민족이었으며 억압과 굴욕,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사건과 그로 인한 영적 이스라엘과 물질적 이스라엘의 가시적인 분열이 있는 지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중요한 변화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민족들 사이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약하고 영향력 없는 소수 집단이었던 영적 이스라엘이 깨어나고 모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을 따르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로 묶어 그분의 영으로 무장시키고 인류의 구원과 영화를 이룰 때까지 그들을 전투에 보내실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르침은 12권의 "참 생명의 책"에 수집된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시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서 물질주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분의 왕국을 새로운 유산으로 주신 분을 가슴에서 쫓아 낸 이후로 길고 슬픈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혹독한 억압의 시대는 끝났고, 부유해졌으며 돈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자랑스러워졌고 민족주의 지부는 다시 국가로 정착했으며 오래된 종교적 전통이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영적 사명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지구상의 모든 나라(소수 민족을 제외한)가 물질화되어 "금송아지 주위에 춤을 추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이 설명에서 물질주의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경우, 이 논문은 영적 및 물질적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아직 땅의 나라들 사이에서 제사장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실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야곱의 후손에 대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은 야곱의 후기 이름인 이스라엘이 이미 영적인 이름인 것처럼 영에 관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약속이 물질, 즉 지파나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킨다고 믿는 것은 실수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자가 여전히 그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물질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둘 다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의 연합을 형성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 물질주의 이스라엘이 돈, 권력,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새로운 계시를 인정할 때 - 아마도 또 한 번의 가장 혹독한 방문이 있는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 고통의 눈물로 외칠 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길ियो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